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5호 【루게 제23342호】 주체100(2011)년 1월 25일(화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에쥘트 오라스콤전기통신회사 리사장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라스콤전기통신회사의 투자활동이 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동지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있는 때에 방문한 이인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리사장을 열렬히 환영하신 다음 그와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월 23일 식사에서 리사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월 23일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에쥘트 오라스콤전기통신회사 리사장 나그브 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접견을 마친 후 손님을 위하여 만찬을 마련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 위원 나라 여러 분야에 대한 에쥘트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8일과 19일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이따르-따스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령도자께서 기술개건전 1월 18일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CNC기계를 장비된 생산공정들과 새로 만든 기계체계를 보시고 공장의 로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적극 연구개발하여 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공장이 나라의 기계제작공업발전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 《김정일선집》 제7권(증보판) 출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집대성한 《김정일선집》 제7권(증보판)을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선집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63(1974)년 10월부터 주체65(1976)년 12월까지의 기간에 발표하신 39건의 로작들이 수록되어있다. 로작들이 발표되던 시기는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며 사회주의대건설투쟁을 힘있게 벌려 6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던 역사적인 시기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로작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을 높이기 위하여》, 《당의 정치사상적통일과 순결성을 대를 이어 견결히 수호하자》에서 우리 당을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통일과 단결을 고수하고 강화하는것을 당의 운명, 혁명의 운명, 관련되는 근본문제로서 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 2.16 경축 준비위원회

### 여러 나라에서 결성

2.16 경축 영국준비위원회가 17일 런던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영국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위원장 하랄 브라가, 부위원장으로 영국공산당전선위원회 위원장 더모트 하드슨이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2월의 명절을 맞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업적로호 등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2011년 2.16 경축 오스트리아준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7일 빈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오스트리아

## 철광석생산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6배 장성

### 금속공업부문 각지 광산들에서

새해공동사업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펼쳐나선 금속공업부문의 각지 광산로동계급이 첫 전투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새해에 들어와 첫 보름동안에 지난해 같은 시기의 1.6배에 달하는 철광석생산실적이 기록되었다. 특히 굴지의 광물생산기지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올해전투의 시작부터 일일계획보다 많은 철광석을 생산하여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은광광산과 제련광산에서도 많은 철광석을 생산하여 주체철광산단위들에 보내주었고 봉원광산에서는 1월 철광석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금 강성대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천만군민의 정치사상적열의는 대단히 높습니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광부들이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생산돌격에 부른 김철로동계급의 편지에 화답하여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령합기업소에서는 공무분공장의 생산을 활성화하여 필요한 부족품을 자체로 보장하면서 한의 철정광이라고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채광, 운반, 선광 등 중요부문들마다에서 중산의 동음이 거세하게 울려져오고있다. 로

## 질 좋은 편직제품을 더 많이

### 강계편직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설비들을 만가동시켜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상품들을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강계편직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새해공동사업의 전투적과업을 새겨안고 년초부터 편직제품생산에서 집단의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에서서는 더 많은 편직제품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주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두고있다. 편직제품생산의 선행공정을 맡은 1제직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뜨개천생산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강계편직공장의 일군들은 교대별사회의 경쟁을 실속있게 조직하여 로동자들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직장의 일군들은 수리공들이 맡은 일에서 높은 책임감을 발휘하도록 힘껏 떠밀어주어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뜨개천생산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고있다. 염색직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치면서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다음공정에 질 좋은 뜨개천을 보장하고있다. 염색직공장의 염색공들은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대로 설비를 다루면서 뜨개천염색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건조작업반의 건조



#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에서 선구자의 영예를 빛내일 불라는 의지

## 강서구역 3중3대혁명붉은기 청산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

### 봄을 앞당기며 청산벌이 낫는다

그 어느 모진, 그 어느 마을 어귀에 서도 절세의 위인들의 사람의 자욱이 뜨겁게 되새겨져 가슴이 찢듯이 컸어드는 영광의 땅 청산벌!

깊숙이 갈아엎은 논밭들, 포전마다에 솟아난 거름더미들이며 모판자리에 규모있게 쌓아 놓은 부토무지들...

아직은 강산이 풍뎉어붙은 추운 겨울이지만 청산벌에는 벌써 봄이 온듯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청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현지도하시면서 모범을 창조하신 단원입니다.》

새벽의 고요를 흔들며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래소리, 트랙터 소리가 울려온다...

새해공공사업의 전후적과업을 받들고 농사치비에 떨치나선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 농장원들이 오수정화장에서 감람과내기작업을 하고있었다.

농장원들의 떠들썩한 웃음소리와 방송선전차에서 울려나오는 《승리의 길》의 힘찬 노래소리가 대지를 들들타고있었다.

거름바가 물씬 풍기는 감람을 삼이 넘치게 퍼서 트랙터에 싣는 작업장 정중철동무를 비롯한 청년작업반원들의 얼굴에서 구슬땀이 흘러내렸다. 그런가하면 분조간 사회주의경쟁의 불바람속에 도시거름실어들이기에서 앞선 나가서 제8, 12작업반원들의 일손마다에서는 불꽃이 이는것만 같았다. 편걸차 넘쳐나게 질 좋은 거름을 가득 싣고 농장전을 향하여 기세좋게 달리는 트랙터운전수들의 얼굴마다에는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인 농업전선을 믿음직하게

지켜갈 결사의 각오가 넘쳐나고있었다.

새해벽두부터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에 그토록 열성인 청산리사람들의 가슴마다에 넘쳐나 있는 것은 영애하는 장군님께서 농장을 찾으시어 몸소 모를 내신 때로부터 40년이 되는 뜻 깊은 올해에 청산벌에 만풍년의 로적가리를 높이 쌓아올릴 드높은 결의였다. 마를줄 모르는 현신의 구슬땀, 피뎠는 애국의 열정으로 강성대국의 새봄을 앞당겨올 신심과 락관이였다.

연날 청산리를 잊지 않으며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는 영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서 새 힘을 받아안고 농사치비전투로 대승을 불러일으키는 리당비서 김성근 동무의 신심남긴 목소리가 울려왔다.

《청산리에 봄이 와야 온 나라에 봄이 온다고 하신 영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에 새기시다. 우리모두 강성대국의 새봄을 알리는 선구자의 역할을 다해나갑시다!》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변함없이 내달리려는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불같은 열정에 의하여 청산벌에는 계절의 봄이 아닌 마음속의 봄이 먼저 찾아왔던것이다.

위훈과 혁신이 없이 어찌 영광의 땅 청산리사람들이라.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여러 차례 찾아오시어 농민살림집을 잘 지어주도록 해주시고 씨름경기까지 보아주시던 원동마을 영애하는 밤, 여기에서도 봄을 앞당기는 청산리사람들의 치열

한 백열전이 벌어졌다. 양어장 바닥감람을 파내어 실어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긋한 우뚝 불빛에 안겨왔다. 그들의 앞장에는 리조급청년동맹비서와 작업반 청년동맹조급담당일군들이 서있었다.

얼어붙은 감람덩어리들을 정대로 가내느라 땅을 뚫듯 흘리는 제 1작업반 청년과 이익쟁이로 소문난 제 3작업반의 처녀사이에 심경이 가 벌어졌다.

《한산만 더...》

《이제 질통에 더 담을 자려도 없소.》

양보를 받아낼것 같지 못한 지 등에는 질통을 지고 두손으로 얼음버개 꼭 감람덩어리를 그려안고 달리는 처녀를 바라보는 농장일군들과 청년들의 눈과 가슴에는 뜨거운 것이 고였다.

새해공공사업의 거름생산과 농사치비를 시작하던 날 밤 뚝뚝은 올해 청산벌에 청춘의 뚜렷한 삶의 흔적을 새겨주고 스스로 달려나온 청년들이였다.

대렬은 날마다 늘어났고 매일 생산하는 거름 량도 늘어났다.

《올해공공사업에서는 선군시대 청년들의 심장마다에는 조국의 큰 짐도 모두 걸머지고 최첨단의 페런도 다 뒤졌다는 드높은 포부와 열정이 차넘쳐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쌀로써 강성대국의 새봄을 남기지 않으려는 선구자들의 앞장에는 언제나 우리 청산리청년들이 서있을것입니다.》

이신작적의 모범으로 전투를 지휘하던 리조급청년동맹비서의 말을 증명이나 하듯 청년들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밤하늘에 울려퍼졌다.

가이내 밤이나 영광의 포전에 성실한 땅과 열정을 바쳐

가는 청산리사람들의 심장은 이렇듯 하나의 의지로 세차게 고동쳤다.

이 땅에서는 누구나 주인이었다. 농촌지원의 불길놀이 새해에 들어와 1800여의 질좋은 도시거름을 실어다준 강서구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자욱이린 청산벌의 농사에 기여하고있으며 가정에서 마련한 수백권의 소농기구를 가지고 찾아와 방학기간 청년작업반의 농사치비를 도와준 김책공업대학 자동화공학부 학생 김만복동무...

그 다음에 뒷받들려 농사차비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기계

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1월중순현재 거름생산계획 넘쳐수행, 60여종에 10만여점의 중농농기구 확보!

자나깨나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리는 열렬한 충정, 그의 숭고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서러린 한몸이 그대로 한몸의 거름이 되어온다는 결사의 각오, 바로 이것이 기적과 혁신의 원천이었다.

선군시대 애국농민의 충정의 높이이자 썰미의 높이이다. 불라는 애국의 열정과 헌신의 땅으로 나라밖들을 가득 채워 강성대국의 대문을 남김없이 열자.

이런 자각을 안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의 선두에서 힘차게 내달리는 청산리사람들의 심장의 열기로 하여 온 벌이 낫는다.

별들도 잠든 깊은 밤, 산기슭에 자리잡은 한 건물에서는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고르른 기대의 동음, 부속품생산과 련결농기계수리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

한밤도 구슬땀을 흘리며 일손을 다그치는 그들은 기계화작업반원들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업과학기술혁명에서 중요인것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를 실현하는것입니다.》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일으키는것을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판관적교리로 틀어쥐고나갈때 대한 공공사업의 전후적과업을 받아안은 기계화작업반원들의 심장은 하나로 고동쳤다. 올해농업생산을 기계화로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는것이였다.

새해 첫 전투가 시작되면서 기계화작업반은 불꽃을 뿜었다. 김형만동무를 비롯한 선반공들은 부속품이 많아야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를 만가동시킬수 있다고 하면서 낮에 밤을 이어 선반을 떠나지 않았다. 한성전동무를 비롯한 창고고안명수들은 비로심총시비를 할수 있게 모내는기계를 개조하는가 지해와 열정을 다 바치였다.

그들의 앞장에는 언제나 작업반장 리명학동무가 서있었다. 농기계준비이자 농사치비성공이라고 하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힘든 농기구를 수리할 때 할수 있게 모내는기계를 개조하는가 지해와 열정을 다 바치였다.

그들의 앞장에는 언제나 작업반장 리명학동무가 서있었다. 농기계준비이자 농사치비성공이라고 하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힘든 농기구를 수리할 때 할수 있게 모내는기계를 개조하는가 지해와 열정을 다 바치였다.

작업반원들의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된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농장의 기계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도록 하려고 바쳐오신 백두산위인들의 위대한 사랑이었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를 실현하는데도 청산리가 전국의 앞장에 서야 한다는데 모내는기계 새로 나왔을 때에도, 좋은 트랙터가 생겨도 제일먼저 보내주신 어버이수령님과 영애하는 장군님.

사랑어린 농기계들이 올해 농사에 한몫 단단히 하게 하지만 기계화초병들인 자기들이 더 뛰여야 한다면서 밤에도 스스로 달려나와 일손을 잡는 기계화작업반원들이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속품생산량은 늘어났고 농기계를 수리하는 작업반원들의 일손은 더욱 빨라졌다.

《도 한때 꿰뚫었다!》

새로 만든 심총시비기를 설치하는것과 동시에 모내는기계를 원만히 수리정비하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를 벌이던 작업반원들이 기쁨에 넘쳐 버치는 환성이였다.

자기들의 구슬땀이 배이고 열정이 갖든 창조물을 바라보며 기쁨을 금지 못하는 그들의 얼굴에는 농촌기계화초병원 영애와 긍지, 올해 알뜰증상을 기계화로 확고히 담보해갈 불라는 열정이 비껴있었다.

받은 소리없이 깊어가도 기계화작업반의 불빛은 꺼질줄 몰랐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열렬해지는 이들의 보람의 마음이란듯, 새해에도 농사를 잘지어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려는 청산리사람들의 총정의 불길이던듯...

## 미 더운 기계화초병들

노래 《승리의 길》과 함께 새해공공사업을 준비하는 심장에 받아안은 우리 청산리사람들의 가슴은 쌀로써 당을 받드는 애국농민의 본분을 다해나갈 불라는 열의로 세차게 끓어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알곡생산을 늘이자면 농사의 주인인 농민들이 재구실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공공사업의 구절구절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데서 나라의 쌀독을 책임 짓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일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있다.

청산리에 봄이 와야 온 나라에 봄이 온다고 하신 영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노래 《승리의 길》과 함께 새해공공사업을 준비하는 심장에 받아안은 우리 청산리사람들의 가슴은 쌀로써 당을 받드는 애국농민의 본분을 다해나갈 불라는 열의로 세차게 끓어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알곡생산을 늘이자면 농사의 주인인 농민들이 재구실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공공사업의 구절구절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데서 나라의 쌀독을 책임 짓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일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있다.

청산리에 봄이 와야 온 나라에 봄이 온다고 하신 영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노래 《승리의 길》과 함께 새해공공사업을 준비하는 심장에 받아안은 우리 청산리사람들의 가슴은 쌀로써 당을 받드는 애국농민의 본분을 다해나갈 불라는 열의로 세차게 끓어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알곡생산을 늘이자면 농사의 주인인 농민들이 재구실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공공사업의 구절구절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데서 나라의 쌀독을 책임 짓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일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있다.

청산리에 봄이 와야 온 나라에 봄이 온다고 하신 영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노래 《승리의 길》과 함께 새해공공사업을 준비하는 심장에 받아안은 우리 청산리사람들의 가슴은 쌀로써 당을 받드는 애국농민의 본분을 다해나갈 불라는 열의로 세차게 끓어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알곡생산을 늘이자면 농사의 주인인 농민들이 재구실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공공사업의 구절구절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데서 나라의 쌀독을 책임 짓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일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있다.

청산리에 봄이 와야 온 나라에 봄이 온다고 하신 영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노래 《승리의 길》과 함께 새해공공사업을 준비하는 심장에 받아안은 우리 청산리사람들의 가슴은 쌀로써 당을 받드는 애국농민의 본분을 다해나갈 불라는 열의로 세차게 끓어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알곡생산을 늘이자면 농사의 주인인 농민들이 재구실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공공사업의 구절구절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데서 나라의 쌀독을 책임 짓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일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있다.

청산리에 봄이 와야 온 나라에 봄이 온다고 하신 영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노래 《승리의 길》과 함께 새해공공사업을 준비하는 심장에 받아안은 우리 청산리사람들의 가슴은 쌀로써 당을 받드는 애국농민의 본분을 다해나갈 불라는 열의로 세차게 끓어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알곡생산을 늘이자면 농사의 주인인 농민들이 재구실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공공사업의 구절구절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데서 나라의 쌀독을 책임 짓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일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있다.

청산리에 봄이 와야 온 나라에 봄이 온다고 하신 영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노래 《승리의 길》과 함께 새해공공사업을 준비하는 심장에 받아안은 우리 청산리사람들의 가슴은 쌀로써 당을 받드는 애국농민의 본분을 다해나갈 불라는 열의로 세차게 끓어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알곡생산을 늘이자면 농사의 주인인 농민들이 재구실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공공사업의 구절구절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데서 나라의 쌀독을 책임 짓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일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있다.

청산리에 봄이 와야 온 나라에 봄이 온다고 하신 영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노래 《승리의 길》과 함께 새해공공사업을 준비하는 심장에 받아안은 우리 청산리사람들의 가슴은 쌀로써 당을 받드는 애국농민의 본분을 다해나갈 불라는 열의로 세차게 끓어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알곡생산을 늘이자면 농사의 주인인 농민들이 재구실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공공사업의 구절구절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데서 나라의 쌀독을 책임 짓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일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있다.

청산리에 봄이 와야 온 나라에 봄이 온다고 하신 영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 만풍년의 로적가리 높이 쌓으리

《노래 《승리의 길》과 함께 새해공공사업을 준비하는 심장에 받아안은 우리 청산리사람들의 가슴은 쌀로써 당을 받드는 애국농민의 본분을 다해나갈 불라는 열의로 세차게 끓어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알곡생산을 늘이자면 농사의 주인인 농민들이 재구실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공공사업의 구절구절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데서 나라의 쌀독을 책임 짓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일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있다.

청산리에 봄이 와야 온 나라에 봄이 온다고 하신 영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노래 《승리의 길》과 함께 새해공공사업을 준비하는 심장에 받아안은 우리 청산리사람들의 가슴은 쌀로써 당을 받드는 애국농민의 본분을 다해나갈 불라는 열의로 세차게 끓어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알곡생산을 늘이자면 농사의 주인인 농민들이 재구실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공공사업의 구절구절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데서 나라의 쌀독을 책임 짓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일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있다.

청산리에 봄이 와야 온 나라에 봄이 온다고 하신 영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노래 《승리의 길》과 함께 새해공공사업을 준비하는 심장에 받아안은 우리 청산리사람들의 가슴은 쌀로써 당을 받드는 애국농민의 본분을 다해나갈 불라는 열의로 세차게 끓어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알곡생산을 늘이자면 농사의 주인인 농민들이 재구실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공공사업의 구절구절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데서 나라의 쌀독을 책임 짓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일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있다.

청산리에 봄이 와야 온 나라에 봄이 온다고 하신 영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 현지말씀관철을 대중운동의 주선으로 틀어쥐고

《노래 《승리의 길》과 함께 새해공공사업을 준비하는 심장에 받아안은 우리 청산리사람들의 가슴은 쌀로써 당을 받드는 애국농민의 본분을 다해나갈 불라는 열의로 세차게 끓어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알곡생산을 늘이자면 농사의 주인인 농민들이 재구실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공공사업의 구절구절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데서 나라의 쌀독을 책임 짓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일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있다.

청산리에 봄이 와야 온 나라에 봄이 온다고 하신 영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노래 《승리의 길》과 함께 새해공공사업을 준비하는 심장에 받아안은 우리 청산리사람들의 가슴은 쌀로써 당을 받드는 애국농민의 본분을 다해나갈 불라는 열의로 세차게 끓어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알곡생산을 늘이자면 농사의 주인인 농민들이 재구실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공공사업의 구절구절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데서 나라의 쌀독을 책임 짓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일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있다.

청산리에 봄이 와야 온 나라에 봄이 온다고 하신 영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노래 《승리의 길》과 함께 새해공공사업을 준비하는 심장에 받아안은 우리 청산리사람들의 가슴은 쌀로써 당을 받드는 애국농민의 본분을 다해나갈 불라는 열의로 세차게 끓어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알곡생산을 늘이자면 농사의 주인인 농민들이 재구실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공공사업의 구절구절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데서 나라의 쌀독을 책임 짓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일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있다.

청산리에 봄이 와야 온 나라에 봄이 온다고 하신 영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노래 《승리의 길》과 함께 새해공공사업을 준비하는 심장에 받아안은 우리 청산리사람들의 가슴은 쌀로써 당을 받드는 애국농민의 본분을 다해나갈 불라는 열의로 세차게 끓어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알곡생산을 늘이자면 농사의 주인인 농민들이 재구실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공공사업의 구절구절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데서 나라의 쌀독을 책임 짓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일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있다.

청산리에 봄이 와야 온 나라에 봄이 온다고 하신 영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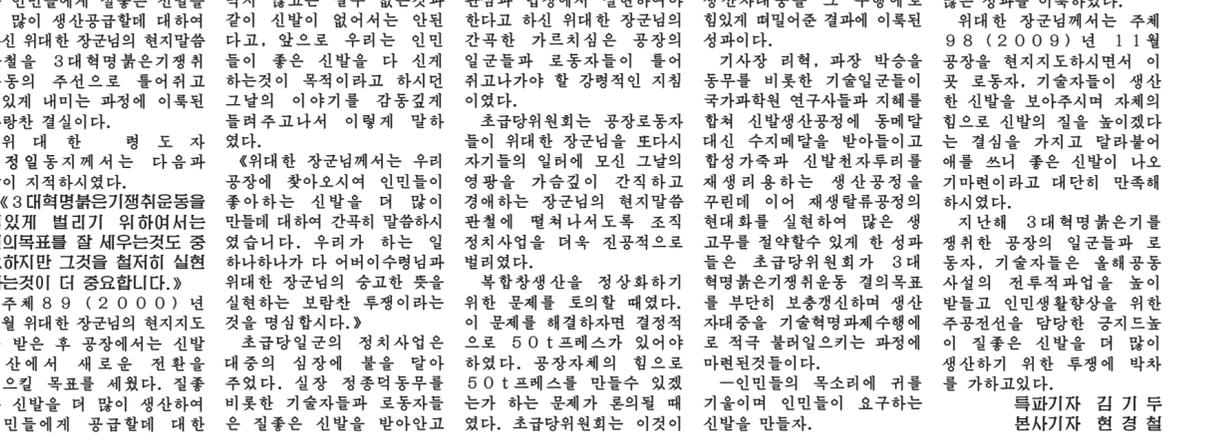
《노래 《승리의 길》과 함께 새해공공사업을 준비하는 심장에 받아안은 우리 청산리사람들의 가슴은 쌀로써 당을 받드는 애국농민의 본분을 다해나갈 불라는 열의로 세차게 끓어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알곡생산을 늘이자면 농사의 주인인 농민들이 재구실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공공사업의 구절구절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데서 나라의 쌀독을 책임 짓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일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있다.

청산리에 봄이 와야 온 나라에 봄이 온다고 하신 영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리승철

# 시대를 뒤흔드는 총진군의 주제가 - 《승리의 길》

명목의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무대 우에서가 아니라 투쟁으로 들끓는 시대의 거창한 흐름속에서 검증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거룩한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주제 100년사를 총화짓게 되는 뜻깊은데 의의 있는 올해의 첫날 당보 1면에 게재될 가요 《승리의 길》이 바로 그러한 명곡이다.

가요 《승리의 길》은 주제 87(1998)년에 창작되었다. 십년 이념 강산도 변한다는 말도 있지만 노래가 나온 때로부터 어느덧 세월은 흘러 세기가 바뀌었고 조국땅에는 놀라운 전변의 력사가 수놓아졌다.

이 노래와 더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이 걸어온 지난 10여년은 류베 없는 시련과 난관속에서 우리 위업의 정당성, 그 승리의 필연성을 실천으로 확신하게 된 보람차고 긍지로운 투쟁의 나날이었으며 선군조선의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신뢰심이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더욱 확고부동하게 자리잡은 영광의 나날, 행복의 나날이었다. 바로 이 위대한 력사의 진로와 함께 가요 《승리의 길》의 명목으로서의 가치가 시대앞에 독특히 른증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적인 노래는 투쟁의 대오에 높이를 올리며 진군가이며 시대의 행진곡이다.》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한편의 노래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일었던 그날의 충격을 잊지 않고 있다.

은 나라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붙어 계국사의 자들의 악랄한 도전을 철의 신념으로 짓부시며 우리의 사회주의를 지켜가던 그 나날들은 얼마나 간고하고 시련에 찬 나날이었는가. 하지만 그 어떤 시련도 역경도 조

신이 선택한 신념의 길을 가로막을수 없었다.

오늘의 고난의 길을 거어이 락원의 길로 전변시키야 할 불같은 신념을 안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불같은 강행군길을 뜻없이 헤쳐나가실 때 우리 천만군민이 심장으로 합창한 노래가 바로 가요 《승리의 길》이었다.

머나먼 혁명의 길에 흘린 피 붉은 거에 있고 승리의 천만리우에 영광의 자욱이 있다. 수령님께서 시작한 이 혁명 거어이 장군님따라 승리멀치리...

척과도 성스러운 투쟁의 나날 이 노래가 울려다졌을 때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가. 그 누가 내 마음 몰라봐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혁명의 길을 뜻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과 함께 결사의 가오안고 싸우기는 명사들과 인민들...

력사의 눈보라, 비바람을 다 맞으면서 우리 장군님께서 이 땅우에 뿌려가신 번영의 씨앗이 오늘도 알찬 열매로 주렁지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죄주의 강행군을 진두지휘하시던 그 나날 이 노래를 들려주시고 높이 평가하시던 시가사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는 구절이 있는데 시대적요구를 잘 반영하였다고, 오늘날은 비록 어렵지만 난관을 뚫고나 가면 반드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보다 행복찬 생활을 창조할수 있다는 사상이 얼마나 좋은가 뜻깊게 말씀하시었다.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 무심히 외우수 없는 노래의 이 구절은 천만군민의 심금을 울리며 필승의 신념, 혁명의 철리로 심장마다에 울려들었다.

그것은 노래가사의 한 구절이기 전에 혁명의 목소리였고 시대의 부름이었고 시련을 맞아와 증언한 력사의 폭풍우를 헤쳐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맹세였고 실천이었다.

천만대적이 달려들어도 끄떡없이 맞받아나간 거어이 돌파하는 거질, 혁명의 길에 오직 앞으로만 나아갈 때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는 바로 백두산위인들의 슬하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배운 혁명철학이다. 백두산위인들의 의지, 그 공격정신과 무비의 당령, 배짱에서 력사의 어느곳도 전은 물거품이 되었고 승리는 언제나 우리의 것이 되었다.

가요 《승리의 길》의 명목으로서의 가치는 비단 그 력사적투쟁에만 있지 않다. 참다운 명목은 력사의 상징으로만이 아니라 새로운 력사를 창조하는 시대의 진군가로 계속 힘차게 울려다질 때 더 귀중한 가치를 가진 법이며 그러한 노래의 생명력은 세월을 뛰어넘는 것이다.

거어이 투쟁의 길을 자랑스럽게 걸어오며 새로이 새로운 길을 가슴속까지 내다보고있는 이 시각 사람들은 우리에게 크나큰 힘과 용기를 안겨준 백승의 노래, 신념의 노래 《승리의 길》을 다시금 힘차게 불러보고있다. 폭풍이 사납다 해도 이 땅에 다른 길은 없다고 심장으로 합창하며 이 뜻있는 명곡이 새대의 진군가로 높이는 울려들도록 하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심원한 의도를 깊이 새겨보고있다.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의연히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여있고 우리가 헤쳐가야 할 선군의 길은 아직도 멀고있다. 그러나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불배성을 굳게 믿고 평평한 미래를 향하여 신심edly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이는 승리하는 길이다.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의연히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여있고 우리가 헤쳐가야 할 선군의 길은 아직도 멀고있다. 그러나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불배성을 굳게 믿고 평평한 미래를 향하여 신심edly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이는 승리하는 길이다.

명곡 《승리의 길》은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있는 선군조선의 아들 딸들에게 새로운 투쟁의욕과 혁명적 담판을 북돋아주고있다.

포부가 크면 천리로 지척이고 신념이 강하면 마흔둘 길도 열린다. 우리의 포부는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기어이 꽃피워 이 땅에 주제의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것이며 우리

국가과학원 수산과학분원의 일꾼들과 과학자들이 이 땅의 웅대한 인민생활향상을 실현하기 위해 새해의 첫 전투에서부터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당의 품속에서 키워온 창조적 힘과 지혜와 재능을 가장 높이기 위하여 할 때입니다.》

## 2.16경축 제16차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군체육경기대회 개막

【평양 1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2.16경축 제16차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군체육경기대회가 개막되었다. 이번 경기대회에서는 풍구, 배구, 탁구, 태권도, 사격, 집 단달리기, 널뛰기 등 비롯한 11개 종목의 경기가 평양체육관과 매아사적관 등에서 진행된다. 개막식이 24일 평양체육관에서 있었다. 강승수내각부총리, 리영수



## 위생선전을 앞세워 안주시위생방역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의 (예방)학적방책을 관철하는데서 기본은 위생방역 사업을 강화하는것입니다.》 올해공중사설의 전투적효소일 접한 안주시위생방역소 일꾼들의 가슴마다에 혁명적열정이 차넘치고있다. 각종 전염병을 미러막기 위한 사업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이들은 시안의 여러곳에 감시 지점들을 정하고 감염병진, 통보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다. 각종 전염병을 미러막기 위한 사업과 함께 방역소에서는 시안의 주민지주들에게 나가 가재와 마음, 일터를 알뜰히 꾸리 기위한 위생선전사업도 적극 벌려나가고있다. 새해 첫 전투부터 눈에 띄는 것은 들끓는 전투장들로 달려

## 최첨단돌파전의 전초병된 자각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과학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교원혁신이 과학연구 사업을 잘하여 훌륭한 연구 성과를 내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사리원시에 있는 어느 한 공장을 찾았다. 생산선장에서 우리는 낮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었다. 도면을 펼쳐놓고 이곳 기술자들이 천진한 도면을 벌리고있는 그들은 사리원공립고등학교 일꾼들과 교원들이었다. 동맹한 일꾼은 우리에게 사리원공립대학의 일꾼들과 교원들이 새해공중사설을 받어안고 남다른 공장으로 달려나와 중요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위해 낮과 밤을 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선 일에서나 자신의 힘으로 해낸다는 림장관태도 가 생면 지혜도 나오고 용기도 생기게 된다.》 동대원구역청소년체육학교는 동대원구역에서 인민체육인물배출수동부를 비롯하여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져있는 체육인들을 많이 배출한 자랑을 가지고있다. 이 학교는 체육선수후비육성사업에서 앞서 달려가는 단위들중의 하나이다. 최근년간에도 학교체육경기 대회와 투상과 제2, 력기 등 여러 종목경기들에서 우승의

##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불타는 열정

국가과학원 수산과학분원 과학자들 증식시키기 위한 양식사업에 과학기술특성에 맞게 옮겨 진행해나가는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강과 호수가 많은 우리 나라에서는 양어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것이 중요하다. 과학자들은 민물수역에서의 양어적지를 선별하고 그에 기초하여 군중양어를 하 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과학연구 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 있다. 이들은 생산현장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대 기초하여 지역별특성에 맞는 양어방법을 새롭게 확립하며 풍정어, 초어, 환어를 비롯한 적합한 품종들의 종분류와 생산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과학 연구사업에 몰두 하고있다. 현실직의가 큰 여러종의 새로운 물고기품종들을 연구 하여 생산에 도입하고 많은 경험을 제록한 과학자들은 양어사업에서 기본인 양어역

## 들끓는 현실속으로 사리원공업대학 일꾼들과 교원들

어거며 과학연구활동을 벌리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미더운 그들의 모습을 바라 보는 우리의 가슴은 뭉클하였다. 지난해 정방산종합시공장 망가리가공공정의 현대화와 은과공에 일떠선 발전소 전기생산공정의 컴퓨터화를 비롯하여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에서 높은 실적을 내어 실력있는 교원집단으로 소문을 낸 이들이었다. 하지만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최첨단과제의 전초병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올해에도 과학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고있는 그들이 참으로 돋보이고 자랑스러웠다. 이 공장에서만 아니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으로 풀려난지는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마다에서 대학의 교원들은 불타는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며 최첨단과제의

## 제힘을 믿고 떨쳐나 동대원구역청소년체육학교에서

영예를 지니였으며 수시명의 체육선수후비들이 중앙체육단들에 선발되었다. 물질기술적토대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속에 이룩된 전변의 소식도 많이 시적인 본보기학교로도 손꼽히고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마다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 소름없이 많은 일을 하여온 학교일꾼들과 종업원들의 혁명적인 사업 기풍과 일본새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해태한가지만 하여도 학생들의 훈련조건, 생활조건보장에

## 인디아공화국의 날에 즈음한 영화감상회 진행

【평양 1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인디아공화국의 날에 즈음한 영화감상회가 24일 대동강외교관청에서 진행되었다. 영화감상회에는 프라파르 경 사 주조 인디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었다. 조선인디아친선협회 부위원장인 전영진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친선협회성원들, 시내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인디아에올려올려 《근복》을 감상하였다.

## 에리트 오라 스 콤 전기통신회사 이사장 귀국

인민공화국 합영투자위원회 위원장 리수용 등 관계부

## 메뚜기를 밀고 떨쳐나

메뚜기를 밀고 떨쳐나 학교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올해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이고있다. 장도리를 단단히 하고 좋은 훈련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꾸리기 위한 사업, 교수훈련지도를 보다 과학화하기 위한 사업을 많은 사업들을 전개하고 힘있게 내밀고있다. 지금 동대원구역청소년체육학교의 날꾼들과 종업원들은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을 끊임없이 분출시켜 학교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체육선수후비육성에서 더 큰 성과를 안아올 불타는 결의를 넘겨주고있다. 본사기자 전 철 호

## 강남군 녀맹원들

는던인 포전길로 거름을 편 거름생산투쟁을 힘있게 가동 실어내는 두 녀성이 있었

## 로선에 날리는 돌격대기 발

을헌동농장포전을 가로지른 도랑과기 한창이던 며칠전이었다. 정대과 목평이, 질통을 메고 작업장에 도착한 들깨원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어느새 달려나와 일을 시작하였는지 김영숙, 최영숙, 전금숙, 김순희 등 무릎 비롯한 돌격대원들이 따름을 흘리며 얼얼한 바닥을 파내고있었던 것이다. 어렵고 힘든 일이 세기 될 때마다 솥선 어깨를 들이밀고 이진작하는 그들의 모습은 돌격대원들을 분발시켰다. 소한무렵의 맨뺨 바람이 눈가루를 휘뿌리며 거름을 부리었다 그들의 뜨거운 열정을 식힐수 없었다. 잠시후 여기저기에서 우둥 불이 타오르고 웃음소리, 합마질소리와 함께 기동예술선대원들이 부르는 혁명가요의 힘찬 선율이 작업장에 메아리쳤다. 첫 전투를 시작하여 보통단에 수시 t의 거름을 생산! 이 놀라운 성과는 녀맹들 격대활동을 활발히 벌려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용가녀맹원들의 뜨거운 애국심의 분출이었다. 오늘도 강남군의 녀맹원 들은 농경전선인 인민생활 향상에 헌신하는 생명선이라고 지적인 공동사설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중증농기구준비를 비롯한 농촌을 물결처럼, 로력적으로 돌기 위한 돌격대 활동을 힘있게 벌리며 남편들과 똑같은 대고조의 앞장속에 나가고있다. 송 현 수

## 농업생산에 적극 이바지할 일꾼들과 과학연구 사업에서 창조적지혜를 합쳐가고있다.

성열을 높이 올리고있었다. 원천리공정의 자동조종실현에 정제적지혜를 합쳐가는 강과강 박민원, 실장 차정수 등무를 비롯한 연구집단과 수 많은 비전을 절약하면서 국가에 큰 리익을 줄수 있는 첨단연구를 마지막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전자공학부의 교원들... 《올해 우리의 목표는 도안의 경공업부문에 현대화를 최첨단수준에서 면 앞날을 내다보며 전망성있게 추진시켜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는 데 실력적인 기여를 하는것입니다.》 대학일꾼의 신심에 넘친 목소리였다. 우리는 이들의 결심이 실천으로 이어지리라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본사기자 리 은 남



농업생산에 적극 이바지할 일꾼들과 과학연구 사업에서 창조적지혜를 합쳐가고있다. -성열분원 실험생활과학연구소에서- 리명명 찍음



